

인도 : 임창세 목사

※ 표는 일어나서 하시기 바랍니다.

1부

예배의부름	인도자
기원	인도자
※찬송	35장 다같이

2·3부

예배의부름	인도자
※임재찬양	하늘의 문을 여소서 다같이
※교독문	21.시편 34편 다같이
참회기도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267장 다같이
기도	1부:정광옥 권사 2부:정순진 권사 3부:윤경수 청년
성경봉독	누가복음 8장 26-39절(신약104) 인도자
찬양	하나님의 그늘 아래 영상
말씀	주만바라불지라(30) 임창세 목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4월 봉사위원

안내위원	1부 : 김광용 2부 : 김정규	다음 주일 예배 기도
헌금위원	1부 : 황형옥 2부 : 손영애 주경숙	1부 : 하연주 집사 2부 : 이미숙 권사 3부 : 유승환 청년
식당봉사	이번주 : 다음주 :	

결 단 찬 양	· · · 나 주님의 기쁨되기 원하네 · · ·	다 같 이
헌 금 기 도	· ·	

【누가복음 8장 26-39절】

²⁶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²⁷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매 그 도 시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 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²⁸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²⁹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으므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³⁰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나 물으시니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³¹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³²마침 그 곳에 많은 돼지 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³³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때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³⁴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³⁵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³⁶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³⁷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³⁸귀신 들린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³⁹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 부활절감사헌금

임창세·주리에 강경희·안혜자 강복순 강인식·심은영 곽형순 권영희 김금란 김상우 김상호 김영선 김용수·이미숙 김정규·정영숙 김정에 김현섭 김효영·정순진 나차금 남영옥 남효정 민지혜 박상민, 김영옥 박연우 박정순 박정아 박춘화 박희균·이혜영 서소영 손미자 손영애 신영숙 신한례 안순조 안홍옥 양웅모·김영주 양준원 우순희 유병주 유인숙 유향순 윤관순·박심원 이경임 이만순 이말자 이상설·박옥년 이수주·박기자 이용준·김향순 이인임 이종임 이창우·정지영 이혜정 임수정 임수향 임영희 임완민 임지은 임한길 장명자 전명숙 전옥자 정광옥 정귀자 정장환 정재현 정종언 조명숙 조병운·박영애 조점동·황영옥 주경숙 주영순 주종찬 천광우 천준영·이태화 최광순 최미연·백승환 최운교 최인선 최진수·최영란 추사순 하연주 한규봉 한준우 홍은정 홍지현 무명1

◆ 성경일독 37주차 안내 (68명)

강복순	곽삼화	김금란	김남일	김명숙	김영선	김영옥	김영주
김예진	김예찬	김용수	김정예	김현섭	김효영	나차금	남영옥
남효정	박기자	박심원	박영애	박옥년	박정순	박정아	박춘남
서소영	석장환	신연호	신영숙	안상분	안순조	양웅모	우순희
우희연	유인숙	유향순	윤종찬	이경미	이만순	이미숙	이복덕
이복음	이상설	이용준	이혜영	이혜정	임근실	임신자	임완민
임한옥	장영미	전명숙	정광옥	정영숙	정장환	정재하	정정희
주리아	주영순	주종찬	최광순	최미연	최영란	최운교	최진수
하연주	한규봉	홍지현	황영옥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19:105)							

삶의 옥합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마6:20)

◆ 십일조

임창세·주리에 강복순 김상호·장명자 김수매 김옥림 김정규·정영숙 김종순 박상민 박정순 방정원·박지희 서인순 신미정 신새벽 우순희 윤성호 윤종찬 이 희·임연자 이경미 이만순 이소임 이종임 임완순 정장환·나차금 정재현 정종언·유향순 조점동·황영옥 천광우 최진수·최영란 추사순 무명1

◆ 감사헌금

김주용 나차금 남효정 명민주 박상민 박연분 박재락 이순자 손미자 신미정 양미화 이복음 이정훈 전명숙 정귀자 정영숙 정장환 정재하 무명2

◆ 집회(성회)헌금

임창세·주리아 강인식·심은영 김용수·이미숙 김정규 박상민·김영옥 서소영 안순조 유인숙 윤관순·박심원 임완민 임지은 정광옥 정영숙 정장환 주경숙 최광순 최운교 무명1

◆ 선교헌금

손미자 무명1

◆ 건축헌금

강인식 손미자

주일헌금	십일조	감사헌금	부활절 감사헌금	성회(집회) 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366,000	5,555,000	780,000	6,205,000	900,000	100,000	70,000

* 온라인헌금자 명단은 지난주일 오후2시까지 입금자입니다.
그 이후 헌금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표기됩니다.

15. 사랑하는 자를 낮게 한 열심

신앙고백

찬 송 :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찬송가 92장)

기 도 : 말은이

말 씬 : 마가복음 2장 1~12절

말씀묵상

가버나움의 한 중풍병자가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열정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은 어려웠지만, 장애물을 통과하자 병든 몸과 함께 마음까지 치유되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요15:13)”은 사랑의 최고봉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작은 일부터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를 낮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내 일로 알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1-2절).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간 네 사람이 친구인지 가족인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그 병자를 사랑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랬기에 어떤 병이라도 고쳐 주신다는 예수님의 소문에 귀가 번쩍 뜨였을 것입니다. 예수님 앞까지 가는 것이 쉽진 않았지만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이처럼 사랑의 시작은 언제나 형제의 일을 내 일로 삼는 것부터입니다. 기회가 오고 사랑하는 이들이 서두른 까닭에 중풍병자는 고침 받는 길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2. 장애물을 뚫고 나아가야 합니다(3-4절).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이 계신 집까지 왔지만, 상황은 예상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문 앞까지 사람들로 가득 차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없었던 네 사람은 문 밖 한쪽에 있는 계단을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 대들보 사이에 열기설기 매워 놓은 흙과 건초를 걸어 댔습니다. 그렇게 지붕을 뚫어 천장에 큰 구멍을 낸 다음 침상 패 중풍병자를 달아 내렸습니다. 이처럼 어떤 일에도 장애물은 있기 마련입니다. 크나 작으냐의 차이만 있을뿐입니다. 이런 장애물은 피할 것이 아니라 뛰어 넘어야 합니다.

3. 할 일을 다 한 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5-12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성실이 합해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할 일을 다 한 후에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봐야 합니다. 중풍병자와 네 사람은 제 할 몫을 다 했고, 예수님은 치유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치유를 받고 가장 기뻐한 사람은 중풍병자 본인이겠지만 그를 메고 간 네 사람의 기쁨도 그에 못지않았을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데에는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지만, 그것을 통과하면 주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주는 사람입니다.

맺는말.

심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은 누구든지 용서받고 구원의 은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말씀적용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 봅시다.
(중보기도, 담소, 나눔, 초청해 대접하기 등)

둔전소식

둔전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목사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 주일헌금

이번 주 주일헌금은 홍콩성소신학교(중국목회자선교)를 후원합니다.

2. 성경통독강해

성경통독강해를 유튜브와 홈페이지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3. 목장별 전화심방

매주 화요일(1지역)과 목요일(2지역)에 목장별로 전화심방이 있을 예정입니다.

4. 스마트요람 전자출석

스마트요람에 있는 바코드 또는 나눠드린 바코드로 본당 3층에서 발열 및 출석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PLAY스토어 - <스마트요람>앱 다운- 둔전교회를 검색해서 가입)

5. 여신도회 회장 임명

전옥자 권사께서 여신도회 회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6. 교역자 부임

정진영 목사께서 새로 부임했습니다.

7. 헌금안내

온라인 헌금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 351-1098-1626-13 예금주 : 한국기독교장로회 둔전교회

둔전교회를섬기는이들

창립1904년

담임목사 : 임창세

협동목사 : 윤성민

원로장로 : 김효영 이용준

부목사 : 천광우 정진영

지휘자 : 이영준

교육전도사 : 신새벽

반주자 : 임귀희 임미리 임정임

김성혜 이하림

The ninth Year for Vision 120
for Mother Church in Sung Nam

은혜를 나누는 교회 (고후 6:1-2)

DOON JEON
Presbyterian Church



한국기독교장로회
1904
둔전교회
Doon Jeon Presbyterian Church in the Rok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61-1
☎031)754-8600 Fax 031)757-9191 목양실☎ 031)751-7230
www.doonjeon.kr